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를 전해주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정진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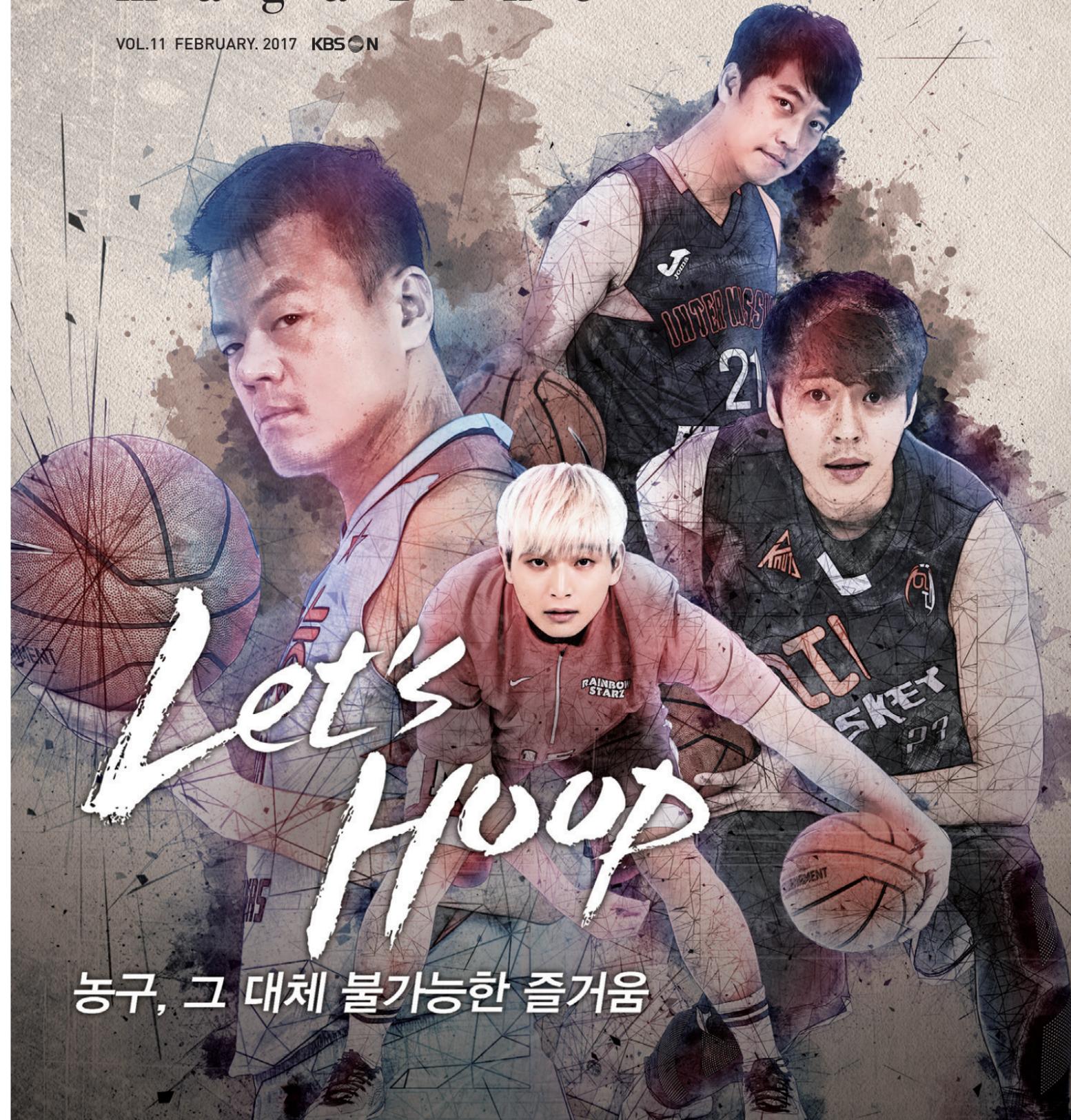
“연예인 농구리그가
농구에 대한 흥미를 되살리는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진영

KBS N

m a g a z i n e

VOL.11 FEBRUARY. 2017 KBS N



농구, 그 대체 불가능한 즐거움

타임슬립 연예사史 주간간TV

과거史를 보면 현재史가 보인다!

추억소환 연예토크쇼

대한민국 연예계 30년사를 한 눈에
가장 핫한 소식만 전한다
그때, 그 시절

시대초월 썸언니 이승연
간족 대마왕 김일중

그리고 "조영구 장영란 김태훈 이준석 홍종선"

매주 목요일 밤 11시
KBSrama 방송



04



12



08



14



16



www.KBSN.co.kr

KBS N magazine

발행인 이준용
발행일 2017.2.6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전화 02-787-3297
기획 홍보팀 이용주, 최고은, 이지희
제작·디자인 디앤씨(www.thednc.co.kr)

CONTENTS

FEBRUARY, 2017 VOL.11

- N special**
- 04 ① 올스타전, 어디까지 즐겨봤니?
2016-2017 WKBL 올스타전
- 08 ② 입덕을 부르는 그 이름, 여자농구
이재일 PD, 김은혜 해설위원 인터뷰
- 10 ③ 진정한 농구의 神을 가른다!
연예인 농구리그 9개 구단 전격 분석
- N Focus**
- 12 대표 스포츠 채널 KBS N Sports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다
송전현 부사장, 김성길 전문위원 대담
- N program**
- 14 그때 그 시절 추억을 소환해드립니다
<주간TV> 포스터 촬영 현장 공개
- Interview**
- 16 누구에게나 리즈 시절은 있다
<주간TV> MC 이승연 인터뷰
- N Story**
- 18 즐거운 직장을 만드는 새로운 생각
KBS N 복지 제도 드림 N 트리
- N news**
- 20 KBS N-WKBL-KCBL 업무협약 체결
- Notice**
- 22 '웃음이 희망입니다' 캠페인 <함께 사진> 공모전



▲ 오프닝 게임으로 진행된 WKBL 라이징스타와 연예인 올스타의 경기



▼ 하프타임 게임에 참여한 연예인 올스타팀 오만석



▲ 경기 전 화이팅을 외치는 김승현, 박진영, 정범균, 오승훈, 박광재

올스타전, 어디까지 즐겨봤니?

여자프로농구(WKBL) 올스타전

2016-2017 여자프로농구(WKBL) 올스타전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하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특히 올해엔 여자농구의 주역 선수들과 연예인 농구단이 함께해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의 조화를 이루며 대중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와 관중이 소통하며 하나 된 그 날의 현장을 소개한다.

지난 1월 15일,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여자프로농구(WKBL) 올스타전이 열렸다. 이번 시즌 WKBL은 신예의 부상과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도드라지며 여느 해보다 많은 변화를 겪었다. 여기에 연예인 농구리그(KCBL)와의 콜라보레이션을 공식 선언하며 리그에 활력과 재미를 더할 것을 예고해 큰 기대를 모았다. 이러한 기대에 맞춰 올스타전도 변화를 꾀했다. '농구 선수'가 아닌 '농구를 사랑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선수들과 연예인 농구단이 나서서 다양한 이벤트와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덕분에 추운 날씨에도 관중과 취재진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별들의 이색 농구 대결 여자농구 신성 VS 연예계 스타

이날 본격적인 올스타전에 앞서 오프닝 경기로 WKBL 라이징스타팀과 KCBL 연예인 올스타팀이 맞붙어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2016년 신인드래프트 1순위인 박지수 선수를 비롯한 김지영, 이하은 등의 신예 선수들로 구성된 라이징스타팀에 맞서 연예인 올스타팀은 박진영, 오만석, 여옥환, 박광재, 정범균, 김승현 등으로 팀을 꾸렸다. 연예인 올스타팀의 화려한 라인업에 관중과 취재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팬들이 "YYP"를 연호하며 응원을 보내기도 했

다. 경기 시작과 함께 연예인 올스타팀은 박광재가 공을 잡고 박진영이 첫 득점을 올리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하지만 라이징스타팀은 김지영, 안혜지 등이 화려한 기술을 뽐내며 활약해 1쿼터에서 8점 차를 벌렸다. 이어진 경기에서 연예인 올스타팀은 드리블과 슈팅에 강한 오만석과 여옥환을 투입해 경기를 풀어나가자 했지만 점수 차를 좁히는 데에는 실패했다. 결국 4쿼터에서 라이징스타팀 진안이 장신 박광재를 온몸으로 수비하며 연예인 올스타팀을 제압, 22점 앞선 62:40으로 승리를 거뒀다. 비록 승패는 갈렸지만 두 팀은 프로와 아마추어,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넘어 농구라는 열정을 공유하며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다. 화려한 기술력으로 경기를 리드한 WKBL 신예 선수들과 프로 못지않은 열정을 불태운 연예인 농구팀 선수들. 이들의 활약은 앞으로 이어질 WKBL과 KCBL 정규 시즌에서 지켜볼 수 있다.



연예인 올스타팀 박진영 인터뷰



Q) WKBL 올스타전에 참가한 소감은?

A)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프로 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이고 너무 기뻐요.

Q) 농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농구는 제가 하는 음악과 가장 잘 어울리는 운동인 것 같아요. 농구 특유의 리듬감과 골밑에서 몸싸움을 할 때 느끼는 특유의 쾌감이 있는데 그게 참 짜릿해요.

Q) 농구와 음악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둘 다 리듬을 탄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차이점은 노래는 혼자 하는 반면, 농구는 여러 명이 같이 한다는 것. 여럿이 함께 하니 든든하고 행복하더라고요.

Q) 오늘 라이징스타팀과의 경기 평가는?

A) 농구공이 남자 공보다 작아서 어색했고(웃음) 라이징스타팀이 코트 스페이스를 잘 짜서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프로답고 뛰어난 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Q) 현재 예체능 어벤저스팀에 소속되어 KCBL에서 활약 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요?

A) 요즘 농구의 인기가 옛날보다 움츠려든 것 같은 느낌인데 KCBL이 WKBL과 함께 농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WKBL을 빛낸 주역들의 짜릿한 한판 승부
핑크스타 VS 블루스타

박혜진, 김단비, 강아정, 배혜윤, 박지수, 강이슬, 한채진 등 국내 선수와 카리마 크리스마스, 카일라 쏘튼, 존쿠엘 존스, 나탈리 어천와 등의 외국인 선수까지 총 24명의 선수가 올스타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은행, KDB생명, KEB하나은행이 '핑크스타'로 한 팀을 이루고 삼성생명, 신한은행, KB스타즈가 '블루스타'로 묶였다. 박진영의 시구로 본경기가 시작되었다. 가볍게 즐기는 분위기로 출발했지만 1쿼터 중반 이후 핑크스타가 빠르게 앞서며 경기에 긴장감이 더해졌다. 블루스타는 2쿼터 중반 이후 맹렬히 추격하며 점수 차를 1점 차로 줄였다. 마지막 4쿼터에서는 선수들 모두 기량을 뽐내며 역전을 반복하고 접전을 벌였다. 아슬아슬한 승부에 관중들 역시 폭 빠져들어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환호를 보냈다. 치열하게 진행되던 경기는 경기 종료 4초를 남겨두고 승부가 갈렸다. 100:100 동점 상황에서 박지수 선수가 골밑 슛을 성공시키며 102:100으로 블루스타에 승리를 안긴 것. 극적인 경기가 막을 내리자 선수와 코치단, 관중 모두가 환호를 보내며 멋진 승부를 축하했다.



▲ 박진영이 시구를 마친 뒤 핑크스타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골대를 향해 점프하는 카리마 크리스마스 선수



▲ 부둥켜안은 채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블루스타 선수들

▼ 3점슛 스페셜 매치에 나선 배혜윤 선수



▲ 트와이스의 'TT' 댄스를 선보인 박지수, 김지영 선수



▲ 응원의 열기로 뜨거워진 올스타전 관중석
▼볼링핀으로 돌진하는 핑크스타 위성우 감독

경계는 낮추고 공감은 높이고
관중과 함께 만드는 축제

올스타전의 볼거리는 화려한 경기만이 아니었다. 그간 WKBL을 사랑해준 관중과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경기 중간 중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퀴즈 맞추기, 하프라인 슛 대결 등으로 평소 좋아하는 선수와 팬이 함께 게임을 즐기는 기회를 갖고 피자 100판, 커피 상품권 등 푸짐한 상품도 전했다. 선수들도 숨은 끼와 재능을 방출하며 볼거리를 안겼다. 박지수 선수와 김지영 선수는 드라마 <도깨비>를 패러디하는 한편 걸그룹 트와이스의 'TT' 댄스를 선보여 신인다운 발랄함을 뽐냈다. 또 '감독을 굴려라'라는 게임에서는 각 팀의 감독과 코치가 볼링공이 되어 더 많은 볼링핀을 쓰러뜨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 관중들에게 웃음을 줬다. 긴장감 넘치는 경기와 즐거운 이벤트로 쉴 틈 없이 진행된 올스타전은 MVP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MVP로 선정된 강아정 선수는 "정규리그 동안 스트레스가 쌓였었는데 올스타전을 통해 신나게 웃으며 경기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농구로 하나되는 기쁨을 만끽한 오늘처럼 앞으로도 WKBL이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하길 기대한다.



▲ 이재일 PD

입덕을 부르는 그 이름 여자농구

WKBL 이재일 PD, 김은혜 해설위원 인터뷰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처음에는 매력적인 선수들에게 눈이 가서 보게 되는 게 사실. 하지만 경기를 지켜보다 보면 선수들의 단단한 팀플레이에 감탄하고 각 팀 간의 경쟁 구도와 전략 싸움에 빠져들게 된다. KBS N Sports 이재일 PD(이하 '이재일')와 김은혜 해설위원(이하 '김은혜')을 만나 이번 시즌 여자농구의 이슈를 짚어보고 후반기를 맞은 리그의 판도를 예측해 봤다.

WKBL 2016-2017 시즌이 이제 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은행이 승률 0.95를 기록하며 독주 중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일 사실 우리은행이 강팀이기는 하지만, 이런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전지훈련을 동행했었는데 그때 느낀 분위기와 리그 성적은 차이가 좀 있어요. KB스타즈가 좋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부진하더군요.

김은혜 우리은행은 통합우승 4연패에 빛나는 팀인데다가, 외국인 선수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해주면서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반대 경우로 삼성생명에는 기대주였던 외국인 선수인 토마스가 부상을 겪으며 팀의 성적 하락에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죠.

변연하, 하은주, 신정자 등 베테랑이 줄이어 은퇴하며 WKBL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고도 하는데요, 이번 시즌 가장 도드라진 활약을 보인 선수를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이재일 라이징 스타의 급부상은 이번 시즌 WKBL의 큰 볼거리 중 하나였어요. 드래프트 전부터 수퍼 신인으로 꼽혀온

박지수 선수는 팀 내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고 김지영 선수는 저돌적인 플레이와 화려한 개인기로 뜻밖의 활약을 보였죠. 앞으로도 이 두 선수를 주축으로 한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WKBL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은혜 KEB하나은행 강이슬 선수가 이번 시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기량도 뽐내며 팀 전체의 경기를 풀어나가는 '해결사'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재미있고 알찬 중계를 위해 특별히 노력한 부분이 있으신지요?

이재일 경기 중간에 선수 인터뷰를 넣는 등 몇몇 변화를 주었는데 다행히 각 구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또 대중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소셜네트워크도 적극 활용중입니다. 페이스북 여자농구연맹(@f.WKBL)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kbsn_wkbl)에 경기 명장면이나 선수들의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김은혜 저는 비교적 최근까지 선수생활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심리상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실책하거나 부진을 겪을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읽혀지죠. 중계를 할 때도 이런 관점에서 선수들의 심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여자 선수 특유의 심리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는 것도 해설할 때 도움이 되고요.

앞으로 남은 시즌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은혜 5라운드부터는 체력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주전 선수의 부상이 곧 팀 성적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후반 싸움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또 여자농구는 감독의 지시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 큰 편입니다. 결국 각 팀 감독들의 전략과 리더십이 남은 시즌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열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은혜 해설위원

마지막으로 여자농구만의 매력을 어필한다면?

이재일 여자농구는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는 종목이에요. 스타 성과 실력, 개성을 갖춘 선수들도 매력적이고 각 팀별 감독의 성향을 파악하며 보면 더 흥미롭죠. 또 이슈가 되는 신예 선수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최근 외국인 선수들이 덩크슛을 시도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젊고 새로워진 선수들이 더 좋은 경기력으로 여자농구의 맛을 더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여자농구는 화려한 기술이나 스피드는 없지만 팀플레이와 패스 게임으로 특유의 아기자기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여리여리하고 어린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강인한 에너지를 뽐어내는 것도 묘한 감동과 힘을 주고요. 앞으로 더욱 변화하고 발전할 WKBL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농구의 神을 가른다!

연예인 농구리그 9개 구단 전격 분석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예인 농구단의 진검 승부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끼를 펼치던 이들이 이제 '연예인'이 아닌 '농구인'으로서 재능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예정이다.

KCBL(Korean Celebrity Basketball League, 한국연예인농구리그)가 3개월의 대장정에 올랐다. 박진영을 비롯한 오만석, 정진운, 서지석 등 주요 출전 선수들의 라인업과 경기 장면이 공개되며 KCBL을 향한 팬들의 관심도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그들에게 농구는 "음악과 거의 비슷하게 좋아하는 것"이자 열정을 다 쏟고 싶은 제2의 분야(박진영)이며 "즐거운 휴식"(오만석)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통로"(정진운)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쥘 주인공은 누가될까? 9개 구단의 전력과 대표 선수를 소개한다.

A 조

코드원

모델들로 구성된 팀. 평균 신장 185cm의 장신팀으로 골밑 싸움에 우세하다. 지난 시즌 연예인 농구대회에서 우승한 이력이 있다.

주요 선수: 이시우, 문수인, 배정남, 김무영, 장선우, 한승수, 김기호, 이정훈, 박노혁
감독: 前 프로농구선수 박대남 감독

진혼

연기자로 구성된 팀. 2006년 창단 이후 현재까지 초대 멤버들이 많이 남아있는 장수팀으로 단단한 팀워크와 전통을 자랑한다.

주요 선수: 이상윤, 신성록, 줄리엔강, 권성민, 송동환, 노영학, 허인창, 손현수, 여옥환
감독: 前 프로농구선수 박광재 감독

아띠

선수 명단 50명, 최고 인원을 자랑하는 팀. 연예인 농구 에이스인 서지석이 이끄는 팀으로 이번 시즌 신예를 대거 영입해 반등을 노린다.

주요 선수: 서지석, 김기방, 정근, 정현, 이용훈, 리누, 정이한, 구자성, 신용재, 최민호
감독: 前 서울SK나이트 감독 최인선 감독

신영이엔씨

다양한 분야의 방송인들이 모인 팀. 가드 김지훈의 검증된 리더 능력이 팀을 승리로 이끄는 주요 전력이다.

주요 선수: 김현정, 김지훈, 최정원, 징고, 우종현, 정해인, 이선구, 이재우, 윤시윤
감독: 前 프로농구선수 김일두 감독

레인보우 스타즈

스피디하고 에너지 넘치는 힘으로 새 바람을 일으켰던 팀. 선수층은 얇지만 정진운-박재민-나윤권의 3각 편대가 막강하다.

주요 선수: 정진운, 나윤권, 오승윤, 심영재, 인수, 박재민, 김민상, 오승훈
감독: SQ월드 농구팀 김택훈 감독

B 조

인터미션

뮤지컬과 연극 배우로 구성된 팀. 풍부하고 튼튼한 선수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팀원 간 결집력이 좋다.

주요 선수: 오만석, 김경룡, 김무열, 임형준, 손준호, 서범석, 김산호, 전석호
감독: 前 프로농구선수 임효성 감독

스페이스잼

주목해야 할 따끈따끈 신생팀. 배우 김승현과 가수 노민혁, 더블케이, 베이식 등 젊고 다양한 멤버로 구성되어 에너지와 스웨그(!)가 넘친다.

주요 선수: 노민혁, 김승현, 백인, 상추, 더블케이, 베이식, 오희중, 에이든, 강은탁, 이종수

예체능 어벤저스

<우리동네 예체능> 농구 편 출신 선수들이 모인 팀. JYP 박진영이 이끄는 자타공인 우승 후보다. 1, 2회 연예인 농구리그에서 준우승을 기록한 바 있다.

주요 선수: 박진영, 김영준, 모세, 광희훈, 김태우, 심지호, 송태운, 이성하, 지인호, 정재형, 정윤호
감독: 농구해설위원 우지원 감독

더홀

지상파 방송 3사의 개그맨이 고루 소속된 팀. 숨은 농구 고수들이 모인 실력파 그룹으로 꼽힌다.

주요 선수: 정범균, 권필, 김재욱, 황영진, 이영준, 홍순목, 송준근, 임혁필, 최기섭, 류근일
감독: 前 프로농구선수 한기범 감독

플레이오프 경기 일정

- 2월 25일(토) 부천 실내체육관 오후 7시 A조 4위 VS B조 4위
 - 2월 26일(일) 인천 도원체육관 오후 7시 A조 3위 VS B조 3위
 - 3월 2일(목) 인천 도원체육관 오후 9시 A조 1위 VS B조 2위
 - 3월 4일(토) 부천 실내체육관 오후 7시 B조 1위 VS A조 2위
 - 3월 5일(일) 구리시체육관 오후 7시 결승전
- ※ 자세한 경기 일정은 KBS N 홈페이지(www.kbsn.co.kr) 참조.



대표 스포츠 채널 KBSN SPORTS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다

송전현 부사장,
김성길 전문위원 대담

채널 다변화의 시대, 지상파 3사가 스포츠 중계를 독점하던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케이블 채널과 웹 미디어 등에서 스포츠 콘텐츠를 제작하며 변화와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스포츠 전문 채널로서 KBS N Sports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 한국 스포츠계의 살아있는 전설 송전현 부사장과 김성길 전문위원에게 물었다.



송전현 부사장(좌) 1986년 KBS 스포츠 기자로 입사해 KBS 보도본부 해설위원과 보도위원을 거쳤고 제11대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KBS N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성길 전문위원(우) 1985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 1991년부터 스포츠 프로듀서로 근무하면서 2011 대구 세계육상기획단 단장,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방송기획단 단장, 인천 아시안경기대회 주관방송운영회사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KBS N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대구에서 KBS-KBS N 합동중계의 기반을 닦았다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회식

대한민국에 스포츠 붐이 일던 1980년대, KBS는 과거 씨름부터 시작해 스포츠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스포츠 중계와 관련된 콘텐츠 육성에 힘써왔다. KBS N Sports 채널 역시 2002년 개국 이후 스포츠 전문채널로서 성장을 거듭해왔다. 오랜 시간 스포츠계를 이끌어온 김성길 전문위원은 기획단장으로 있었던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회상하며 당시를 KBS와 KBS N의 합동중계의 기반을 닦은 경이라 이야기했다. 김성길 위원은 “그 전까지는 KBS N의 중계능력과 퀄리티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있었는데,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이런 우려를 깨끗하게 씻었다”며 “이를 계기로 이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등에서 많은 중목을 맡고 중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스포츠 전문채널로서 차별점을 고민할 때

KBS N Sports가 긴 시간 닦아온 중계기술과 콘텐츠 제작능력은 세계경기들을 통해 검증받았다. 김성길 위원과 송전현 부사장은 “이제는 숙련된 기술에서 한발 나아가 스포츠 전문채널로서 타 채널과의 차별점을 고민할 때”라며 의견을 모았다. 김성길

위원은 “1인 미디어나 웹 콘텐츠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작능력 외에도 기획, 마케팅 등의 요소가 동반되어야 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전현 부사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포츠 콘텐츠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86년도 아시안게임, 88년도 올림픽 현장부터 축적된 방송제작역량, 노하우가 충분하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해외 콘텐츠만 수입하려는 것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우리나라 스포츠 콘텐츠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길임을 강조했다. 몇몇 뛰어난 선수를 배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스포츠의 우수성을 콘텐츠로서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스포츠 콘텐츠 장르 개발이 돌파구



중계현장에서의 이규창 제작위원

그렇다면 스포츠계의 베테랑인 김성길 위원과 송전현 부사장이 그리는 KBS N Sports 채널의 청사진은 어떠할까? 그 첫 번째 실마리는 2016 동아일보 경주 국제마라톤대회이다. 당시 경기를 위해 2002 월드컵,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방송단장,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방송준비단장 등을 역임하며 40년 가까이 스포츠계에 몸담아온 ‘살아있는 레전드’ 이규창 KBS N 제작위원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송전현 부사장, 김성길 전문위원이 기획, 프로듀싱을 총괄하며 성사시킨 경주 국제마

라톤대회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실황 중계로 호평을 받았다. 수십 년간 쌓은 베테랑의 현장 경험, 네트워크가 현역 중계진의 기술, 연출력과 어우러지며 성공적인 컬래버레이션을 이뤘다.

이와 함께 송전현 부사장은 연예인 농구리그(KCBL)를 언급하며 “통합스포츠 원년을 맞아 시행하는 여자농구와 연예인농구의 결합도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는 행보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김성길 위원은 “새로운 스포츠 이벤트를 개발하여 콘텐츠 화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훌륭한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새롭게 시도하고 성장해야 할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KBS N Sports의 변화를 이끌 마지막 싹은 스포츠 시사 프로그램 <합의판정 - 대한민국 스포츠를 말한다>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승부조작, 탈세문제 등 스포츠계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아젠다를 제시하며 저널리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성길 위원은 “이러한 시도를 통해 KBS N Sports의 위상도 올라가고 영향력도 발휘되리라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영화 <인턴>의 로버트 드니로처럼 앞에 나서기보다는 후배들을 백업해주며 어려울 때 협의하고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을 마무리지었다. 송전현 부사장 역시 이에 공감하며 “든든한 선배들을 믿고 후배들은 두려움 없이 시도하며 도전해줄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KBS N Sports의 스포츠 시사 프로그램 <합의판정 - 대한민국 스포츠를 말한다>

그때 그 시절 추억을 소환해드립니다

<타임슬립 연예사(史) 주간TV>
포스터 촬영 현장 공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연예계 30년사를 아우르는 추억 소환 연예 토크쇼 <타임슬립 연예사(史) 주간TV>(이하 '주간TV')가 정규 프로그램으로서 첫 방송을 앞두고 공식적인 인사의 자리를 가졌다. 출연진 간의 끈끈한 케미와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본격 추억 소환
연예 토크쇼,
목요일 밤의 왕좌를
노리다

지난 1월 13일, <주간TV>의 포스터 촬영 현장에 취재진을 초청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80년대 잡지 표지' 콘셉트로 꾸며진 포토월을 배경으로 MC 이승연을 비롯한 조영구, 장영란, 김태훈, 홍종선, 이준석 등 6명의 출연진이 모여 저마다 '옛날 잡지 표지모델'스러운 포즈를 취했다. 특히 이승연은 복고풍 선글라스와 수트로 멋을 내 90년대 인기 스타다운 내공을 드러냈다.

<주간TV>는 과거의 핫한 연예 뉴스를 통해 그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고 현재와의 연결점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2월 파일럿 방송 후 특히 30-40대 여성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아 정규 편성되었다. "이승연을 비롯한 출연진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결과도 좋았던 것 같다"는 제작진의 말과 함께 각 출연진의 소감 및 포부도 이어졌다. 이승연은 "좋은 프로그램 만나서 욕심난다. 오래가는 장수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고 김태훈은 "요즘 사는 게 팍팍하고 복잡한데 이럴 때 힘이 되는 게 바로 '과거의 좋았던 시절'에 대한 회상이다. <주간TV>가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 만발,
내공 탄탄
출연진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합

각 출연진 간의 화합에 대한 질의응답도 관심을 모았다. '겹치는 캐릭터' 없이 각기 다른 개성과 이력의 출연진이 만들어내는 절묘한 조화는 <주간TV>를 이루는 중요한 축이기도 하다. "첫 녹화 때 '이 사람들 방송 욕심이 대단하다'고 느꼈다"는 김태훈의 말처럼 출연진 모두 입담과 에너지가 넘쳐서 녹화 시간이 늘어날 정도라고, 이러한 과도한 열정(?)에 진행하기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이승연은 "패널 각자의 시선과 개성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 이러한 다름 속에서 공감과 재미가 더해진다고 생각한다"며 토크쇼의 여왕다운 답을 내놓았다. 출연진 중 최고 연령자인 조영구는 "조영구 대신 김생민을 쓰자"는 김태훈의 공격에 "프로그램에 미련은 없고 가수로 성공하고 싶다"고 너스레를 떨었고, 장영란은 스스로에 대해 "눈치 없는 게 매력이다"라고 평가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 MC인 이승연에 대해 "스폰지처럼 다 받아주는 사람, 울타리처럼 끌어안는 최고의 MC"라며 출연진 모두가 기대와 신뢰를 드러냈다. "모두가 즐겁게 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출연진이 자부심과 애착을 느끼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목요일 밤 11시, 그 비결을 확인해보자.

타임슬립 연예사(史) 주간TV는?

- 이승연 **편안하게 보고 추억과 향수에 젖을 수 있는 시간** 이다.
- 조영구 **24년간 연예계 리포터로 겪은 경험을 나누는 기회** 다.
- 홍종선 **연예인을 비판 대상으로 보지 않고 향수의 매개로 보는 프로그램** 이다.
- 장영란 **편하게 수다 떨고 옛날 이야기에 흠뻑 빠지는 작은 일탈** 이다.
- 이준석 **80~90년대의 문화를 엿보고 다른 세대와의 대화거리를 만드는 기회** 다.
- 김태훈 **그 시절 나의 모습을 떠올려보는 따뜻한 시간** 이다.



누구에게나 리즈 시절은 있다

<타임슬립 연역사(史) 주간TV>
MC 이승연



누구나 리즈 시절에 대한 추억이 있다. 젊고 아름다운 외모로 인기를 누렸던 전성기는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되 미련을 갖지 않고 현재에 충실한다. <타임슬립 연역사(史) 주간TV>(이하 '주간TV') MC 이승연도 그런 사람이다. 그녀에게 과거는 현재를 풍요롭게 하는 힘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다.

<주간TV>가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간TV>만의 매력과 장점은 무엇인가요?

옛날 것을 돌아보면서 현재를 다시보자는 취지가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단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대의 정서와 사회상을 엿보고 현재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얻는 재미와 깨달음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사건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재미있고 편안하게 이야기한다는 점과 다양한 출연진이 만들어내는 케미도 장점이고요.

“출연진 모두 에너지 넘치고 케미가 돋보여 보는 재미까지”

<주간TV> 출연진의 호흡은 어떤가요? 각 출연진의 매력과 역할을 소개한다면?

조영구, 김일중은 방송계 베테랑답게 노련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이끌고 김태훈은 박학다식한 지식을 기반으로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해석을 더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이준석은 가장 젊은 나이여서 젊은 세대의 시선을 대변하고 장영란은 꾸밈없는 모습으로 웃음을 주죠. 홍종선 기자는 기자의 본분을 다하면서도 본인의 사심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저와 겹치는 코드가 많아서 통하는 것도 많아요. 출연진 모두 에너지가 넘쳐서 녹화 분위기가 최고예요.

이승연 씨는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스타이기도 합니다. 타임슬립을 해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요?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웃음). 사실 그때 당시엔 인기 많아서 좋다는 생각보다 잠 좀 자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등 떠밀려서 소중한 것을 잃어간 최고보다는 또 다른 꿈을 쫓아가는 지금이 더 행복해요. 물론 기억하고 싶은 순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있죠. 개인적으로 아이를 낳았던 출산의 순간으로 돌아가 다시 그 기쁨을 만끽해보고 싶



기도 하고, 소중한 친구였던 진실이(故최진실)를 만나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랜 시간 동안 연예계 활동을 하며 과거 전성기와 달라진 점이 있으신지요?

스타로서 사랑 받고 추앙 받았던 시절이 분명 있었고 소중한 기억이지만 이제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야한다고 생각해요. 진정성을 갖되 너무

인위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앞으로 대중과 깊이 공감하며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주간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실이 힘들고 지칠 때 함께 과거를 추억하며 쉬어가고 힘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도 '나의 리즈 시절, 좋았던 시절'을 돌아보고 지금은 잃어버렸을 법한 감정을 다시금 상기시킴으로써 '또 한 번 해보자'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죠.

한편 80~90년대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은 엄마와 함께 보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엔 저랬는데 엄마도 알아?", "엄마는 학창시절에 어떤 연예인 좋아했어?", "그땐 저 사람들이 지금의 빅뱅보다 더 인기가 많았어" 등등 대화를 나누며 세대 격차를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간TV>는 세대 간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

즐거운 직장을 만드는 새로운 생각 드림 N 트리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 KBS N은 임직원의 행복과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 제도를 도입해 건강하고 즐거운 기업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KBS N의 복지 제도 속에 숨겨진 기업 문화와 지향 가치를 소개한다.

KBS N에서는 임직원 모두가 즐겁게 일하는 조직 문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며 이를 6가지 가치로 묶어 '드림 N 트리'로 재정립했다. 이는 임직원의 꿈이 실현되는 출발점의 엔트리(Entry)의 의미와, 임직원 모두가 웃음과 희망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조직문화 나무라는 N 트리(N tree)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N열정, 직원 가족을 위한 복지 혜택인 N패밀리, 사회공헌 참여를 돕는 N펀드, 역량 개발을 위한 N클래스,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N에너지, 임직원 소통 활성화를 위한 N클럽은 드림 N 트리를 이루는 6가지 조직문화 열매다. 깊이 뿌리 내리고 멀리 뻗어가는 나무처럼 드림 N 트리가 임직원의 꿈이 실현되는 출발점이자 웃음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되길 기대한다.



KBS N이 대한민국 농구 활성화에 앞장섭니다

KCBL 업무협약식 체결

스포츠 콘텐츠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여자농구와 연예인 농구리그, KBS N이 힘을 합쳤다.



지난 1월 5일(목) 상암동 KBS미디어센터에서 KBS N 이준용 대표이사(사진 중앙), WKBL(한국여자농구연맹) 신선우 총재(사진 좌측), KCBL(한국연예인농구리그) 대표자 가수 박진영(사진 우측)이 만나 연예인 농구리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2017년 통합스포츠 구현의 원년을 맞아 엘리트 스포츠(여자프로농구)와 생활체육(연예인)의 상호협력을 이루는 첫 사례로, 농구의 색다른 재미 발굴과 생활체육 저변확대 기여에 목적이 있다. 특히 주관방송사 KBS N과 WKBL 그리고 연예인 농구단이 공동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BS N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포테인먼트 장

르의 방송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준 높은 방송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기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 농구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KBS N 이준용 대표이사는 “WKBL의 아낌없는 지원과 KCBL 연예인 농구리그와의 콜라보레이션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의 창출과 생활체육으로서의 농구 발전은 물론,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7 KCBL 연예인 농구리그’는 9개 연예인 농구팀이 참여하며 3월 5일(일)까지 총 21경기가 열린다. 경기는 여자프로농구가 끝난 직후 KBS N Sports를 통해서 단독 생중계된다.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개폐회식 성공 개최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서울 사무국 개소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개폐회식팀이 서울에 사무국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개폐회식팀은 지난 1월 6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 서울시 중구 쌍림동에 사무국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돌입했다. 개소식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사진 좌측)을 비롯하여 패럴림픽 개폐회식 이문태 총감독과 개폐회식 제작 및 운영을 책임질 KBS N 이준용 대표이사(사진 우측)가 참석해 성공 개최의 의지를 다졌다. 서울 사무국에는 현재 조직위원회 및 운영대행사 직원 약 30여 명이 함께 상주하며 조직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는 올림픽에 이어 개최되는 신체장애인들의 국제경기대회로, 개폐회식은 2018년 3월 9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다.

2월에도 강제 집 다이어트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KBS Joy <닥터하우스> 정규편성, 2월 23일(목) 방송

<닥터하우스>가 정규 방송으로 편성되어 2월 23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15분 KBS Joy 채널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파일럿으로 첫선을 보였던 <닥터하우스>가 시청자들의 호평에 힘입어 2월 정규편성을 결정지었다. 물건을 쌓아두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정리와 버림, 비움의 미학을 전하는 강제 집 다이어트 프로젝트 <닥터하우스>는 살림의 여왕 박미선과 대한민국 대표 깔금남 서장훈을 앞세워 대청소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회차에서는 가수 장수원과 캐나다 남편 폴 잼버의 집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버리지 못한 옷, 신발에 점령당하고 집안 곳곳에 물건이 흩어져 찾을 수 없었던 집은 MC의 설득과 전문가의 조언으로 놀라게 변화했다. 사람이 사는지, 물건이 사는지 모를 지경이던 집은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의뢰인을 모두 만족시켰다. 버리는 용기가 없어서, 집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인 시청자를 위해 시작된 <닥터하우스>는 2월 23일(목) 저녁 8시 15분 KBS Joy에서 방송된다.

Notice
웃음이 희망입니다

함께 웃는 사진으로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해주세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KBS N이 함께하는 '함께 사진' 공모전

KBS N은 '웃음이 희망입니다' 캠페인을 통해 웃음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일 때 행복이 커지고 더 큰 희망이 보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등 우리 주변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접수방법 1. 홈페이지(www.kbsn.co.kr/smile) 접수 2. 이메일(smile@kbsn.co.kr) 접수 3. 휴대전화(#9080)로 접수, 사진 전송 ※ 사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이름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세요. (중복 접수 가능)	접수기간 2월 6일(월) ~ 2월 28일(화)	경품 최우수상 전통시장 상품권(30만 원 상당) 우수상 모바일 외식 상품권(5만 원 상당) ※ 경품은 3월 말 우편 및 기프트콘으로 일괄 발송예정
당첨발표 2월 14, 21, 28일 매주 최우수상 2명, 우수상 10명 선정	※ 선정된 사진은 KBS N 홈페이지, KBS N 매거진, 캠페인 영상에 소개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이메일 또는 SMS 접수 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경품의 제세공과금(22%)은 당첨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kbsn.co.kr/smile)	

N pick 이 공은 내꺼야!

지난 15일 열린 WKBL 올스타전에서 루즈볼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일어났다. 오프닝 게임으로 치러진 WKBL 라이징스타와 연예인 농구 올스타의 경기에서 이주연 선수와 박광재가 서로 공을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것. 전 농구선수이자 연예인 농구팀 진혼의 감독을 맡고 있는 박광재는 이날 경기에서 상대 선수들의 집중 수비에 막혀 번번이 공격에 실패하는 굴욕(?)을 맛봤다는 후문이다.



과거사를 보면 현재사가 보인다!
추억소환 연세토크쇼
가장 핫한 소식만 전한다
그때, 그 시절

김일중 (간혹 대마왕)
김태훈 (잡학다식 마성남)
조영구 (리포터게 안석남)
홍종선 (연예계 팩트 사냥관)
이준석 (브레인 꼬꼬마)

타임슬립 연애사
주간TV

매주 목요일 밤 11시 KBS Drama 방송

대한민국 연예계 30년사를 한눈에